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움직이는 것은 아름답다

움직이는 것은 아름답다. 생명의 신비는 경이롭다. TV에서 곤충의 세계를 펼쳐 보일 경우 빨려들듯 지켜본다. 남극에 살고 있는 털북숭이 애벌레는 두 달에 못 미치는 짧은 여름기간에 먹이를 섭취하고 10개월에 가까운 긴 겨울 동안 얼음덩이 속에서 생물학적으로 일체가 정지된 죽어있는 상태로 지내다 다시 얼음과 쌓인 눈이 녹으면 살아난다.

그런 상태를 7년 동안 반복한 후 고치를 짓고 나방이 되는 것이다. 화면을 설명하는 곤충학자는 영하35도에서 70도에 이르는 혹한기의 겨울기간동안 이 털북숭이 애벌레는 몸의 온갖 기능이 멈춰 냉동곤충으로 있다가 햇살에 의해 다시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이었다.

매미는 7년을 나무뿌리의 흙속에서 굼벵이로 머물다 나무에 기어올라 허물을 힘겹게 벗고 매미가 된다. 매미로서의 일생은 보름 남짓이다.

하루살이는 물속에서 애벌레로 머물다 허물을 벗고 하늘로 날아오르는데 하는 것은 인간에겐 사랑의 흔들림과 죽음이 있기 때문' 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강하게 다가온다.

그렇다, 역설 같지만 사랑은 흔들려야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죽음의 마침표가 있어야 오늘의 삶이 소중하고 아름다움으로 채우려는 최선의 노력이 깃드는 법이다. 늙는다는 것은 썰렁한 아쉬움의 눈물방울일 수 있으나 곱게 늙어가며 세월의 무게를 받아들임의 섭수철학으로 승화시킬 수 도 있을 터이다. 들숨 날숨이 연결 안 되는 육체적 죽음은 일생에 있어 한 차례뿐이지만 정신적 방황과 시련으로 겪는 절망의 터널에 갇힌 죽음은 수 수십 차례 누구나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윤회를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7년의 세월동안 털북숭이 애벌레가 되어 얼음 속에 갇혀 살기도 하고 나무뿌리의 흙속에서 굼벵이의 고된 삶을 인내로 견디며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또 하나의 털북숭이 애벌레이자 굼벵이인 것이다.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흉측한 벌레처럼 오늘을 사는 오늘의 주인공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적과 같다
'감사·고마움·미안함' 생활화 하자

하루살이의 일생은 하루일뿐이다. 이 짧은 하루 사이에 사람으로 치면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모두 꿈결처럼 보내며 짝짓기도 하고 알까지 남기며 삶을 마감하는 것이다.

하루살이나 매미의 보름에 비하면 사람의 일생은 지겹도록 길고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는 과정이 아득하게 느껴질 수 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지구촌에서 가장 오래 산다는 미국의 화이트마운틴에 사는 '브리스틴콘' 이라는 나무는 3500년의 나이를 지니고 있고 영국의 웨일즈에는 4000년이 된 주목도 아직 푸른 잎새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사자암의 법당 뜰에도 수령 400년이상 된 느티나무가 200~300년된 아우들을 서너 그루 거느리고 버티어 창창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여기에 비하면 사람들의 일생은 매미의 보름동안의 삶이자 하루살이의 하루 일수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사람에겐 죽음이 있어 더욱 삶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법이다.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읽다보면 명구(名句) 들이 많지만 아킬레스 장군이 독백하듯 내뱉는 '신(神)이 인간을 부러워은 두 눈 멀건히 뜨고도 팍팍하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또 한 마리의 옷 입은 벌레로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열리는 법이다. 마음의 빗장을 풀고 창문을 열고 보면 세상은 온통 빛으로 가득찬 살아있는 자의 세계이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으며 코로 냄새 맡을 수 있으면 이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다. 입으로 말 할 수 있고 씹고 맛 느낄 수 있다면, 열 손가락, 열 발가락 움직일 수 있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경이로움 그 자체이다. 모아둔 게 없으나 움직일 수 있고 병들어 불편하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

가진 게 없어 나눌게 없고 베풀게 없다고 망설이거나 얼굴 붉힐게 아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를 생활의 언어로 선택해 들숨 날숨처럼 사용하자. 부드럽게 칭찬하고 긍정적 착각으로 빛을 모아 느긋하게 여유있게 넉넉하게 당당하게 가슴 활짝 펴고 살 일이다. 움직이는 것은 아름답기 때문이다.

혀 없는 사람이 종지 드러낸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중국 선종 오가칠종(五家七宗) 가운데 위앙종(潙仰宗)은 위산 영우(潙山靈祐:771~853) 선사와 앙산혜적(仰山慧寂:803~887) 선사에 의해 창시된 종파다. 당나라 때 원화연간(806~820)에 영우 선사가 위산에 주석하여 종풍을 떨치다가 그의 제자 혜적 스님이 계승하여 종파로서의 자리를 굳혔다. 이 종파는 당말오대(唐末五代) 시기에 가장 번창하였다가 송나라 때 이르러 점차 쇠퇴하여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여 마침내 임제종(臨濟宗)에 흡수되는 형국이 되었다. 위앙종은 대략 150년 정도 명맥을 유지하였다.

영우 선사는 백장회해(百丈懷海) 선사의 법을 이은 후 7년 동안 위산에 홀로 살다가 대안(大安) 스님이 백장 선사의 회상에서부터 찾아온 이래 학인들이 점차로 몰려들었다. 항상 천오백 명이 넘는 대중이 모여 황벽 선사의 문하보다 더 번성하였다. 상국(相國) 배휴(裴休)가 찾아와 법을 묻기도 했고 인근 백성들이 그의 덕화에 감복하였다. 회창법란(會昌法難) 때는 몸을 숨겨 저자에 피신해 속복을 입고 지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위산으로 돌아와 법을 펴고 대중을 지도했다. 영우 선사를 위산으로 돌아오게 한 데에는 배휴의 간청이 있었다.

영우 선사의 뒤를 이어 혜적 스님이 종지를 승계하여 원주앙산(袁州仰山)에 주석하면서 종풍을 크게 드날렸다. 그러나 오가(五家)의 법맥 중에서 가장 일찍 쇠퇴하여 법계는 4~5세까지 계승되다가 송나라에 와서는 소멸되고 말았다.

앙산 선사가 법을 펼 때는 남양혜충(南陽慧忠) 문하의 탐원(耽源) 스님에게 전해 받은 원상(圓相:○)을 쓰기도 했다. 그는 원상(圓相)을 써서 종지를 쉽게 이해시키려고 애를 썼다.

〈오가종지찬요(五家宗旨纂要)〉의 위앙종 가풍에 대하여 평한 말에 "위앙의 종풍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가정을 이루듯이 스승이 부르면 제자가 화답하는 방식이다. 말로도 침묵으로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밝음과 어둠이 뒤섞여 오가고 체용(體用)이 한 쌍이 되어 드러난다. 혀 없는 사람이 종지를 드러내려 하니 원상을 그려 밝히는구나"라고 하였다.

'원상을 그려 밝힌다' 한 원상에 대한 송(圓相頌)이 있다.

"옛 부처 태어나기 전 응연히 한 모양이 둥글었다.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거늘 가섭이 어찌 전할 손가?"(古佛未生前 凝然一相圓 釋迦猶未會 迦葉豈能傳)

〈선가구감〉에도 위앙가풍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스승이 부르면 제자가 화답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일가를 이룬 격이다. 옆구리에는 글자를 새기고 머리에는 뿔이 높이 솟아났으며, 방 안에서 학인을 점검하면 사자의 허리마저도 끊어진다. 사구(四句)도 여의고 백비(百非)도 끊어지고 한 방으로 모두 부셔버리며, 두 개의 입에 혀가 하나도 없이 아홉 구비 구슬을 잘도 꿴다. 위앙의 종지를 알고자 하는가? 동강난 비석은 옛길에 나뒹굴고, 무쇠소는 소실에서 잠을 잔다."

또 '위산수고우(潙山水 牛)라는 공안이 있다. 〈전등록〉에 의하면 어느 날 위산 선사가 대중에게 말했다.

"내가 죽은 뒤에 산 밑에 있는 마을에 가서 한 마리 검은 암소가 되어 왼쪽 옆구리에 '위산의 중 아무개' 라 쓰겠다. 그때 만약 위산이라 하면 암소인 것을 어찌하며, 암소라 하면 나 위산은 어찌 되는가?"

이때 앙산 선사가 절을 하고 물러났다 한다.

금세와 내세의 이세(二世)를 통하여 보면 현세의 위산이 내세의 암소가 된다는 것이다. 현세와 내세를 합쳐서 보면 위산은 암소이면서 위산이고, 암소는 위산이면서 암소다. 내세를 기준하여 말하자면 위산의 스님이라 말하자니 검은 암소이고, 검은 암소라 부르자니 일찍이 위산의 스님이었다. 사람이 소가 되었을 때 소라고 보아야 하느냐 사람이라고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한 공안이다.

〈선문염송〉에서는 이를 두고 다시 게송을 읊었다.

"산 위에서는 스님이고 산 아래에서는 소네. 털 나고 뿔 달린 무리에 섞여버렸네. 온 세상이 부처되고 조사되려 하는데 홀로 위산만 검은 암소 되었네."

(山上山僧山下牛 被毛戴角混同流 普天成佛與作祖 獨有潙山作水牛)

부처님 법회서 무분별 경지를 보다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⑬ 여시아문의 의미

如是我聞 一時. 佛 在舍衛國 祈樹給孤獨園 與大比丘衆千二百五十人俱
(여시아문 일시. 불 재사위국 기수급고독원 여대비구중천이백오십인구)

爾時 世尊 食時 着衣持鉢 入舍 衛大城 乞食於其城中 次第乞已 還至本處
(이시 세존 식시 착의지발 입사 위대성 걸식어기성중 차제걸이 환지본처)

飯食訖 收衣鉢 洗足已 敷座而坐
(반사흘 수의발 세족이 부좌이좌.)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서 비구 천 이백 오십 인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진지 드실 때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바리를 들으시고 사위성에 들어 가시와 차례로 밥을 비시었다. 그리고 절로 돌아오셔서 진지 잡수시고는 가사와 바리를 거두시고 발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여시아문(如是我聞)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아란존자가 물었습니다. "경전의 첫머리에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이때 부처님께서 "여시아문이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시(如是)는 이와 같이 무엇을, 어떻게, 왜 하라는 것인가?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 대체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과 내가 건강하고 편안하며 행복하기를 바라는 인사입니다. 부처님의 여시는 우리들의 안부 인사와 모양은 같을 수 있으나 그 뜻은 다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 이라 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높고 낮음, 있음과 없음, 생과 사, 좋아하고 싫어함 등 티끌 수와 같은 분별의 이분법이 추호도 서로 다르지 않고, 바른 마음과 분별망념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둘이 아니라는 참으로 평등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하나의 티끌과 다르지 않고, 우주와 다르지 않으며. 허공과 다르지 않고, 지혜와 자비, 공덕과 다르지 않고, 우주의 별들을 생성하고 거두어들이는 화이트홀, 블랙홀과 다르지 않으므로 언어와 문자로 표현될 수 없는 완전한 충만(充滿)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가사를 입으시고, 바리를 들으시며, 사위성으로 들어가시고, 걸식을 하시고, 공양을 하시며,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펴시어 자리에 앉으시는 일체의 생각과 행위가 마음이며, 마음이 일체의 생각과 행위로서 서로 다르지 않고 여여(如如)하십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여시(如是)는 이와 같이 항상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머물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여 분별의 망념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은 가사를 입을 때는 가사에 대해서, 바리를 들을 때는 바리에 대해서, 사위성에 들어갈 때는 사위성과 걷는 것에 대해서, 걸식을 할 때와 공양을 할 때는 많고 적음과 맛에 대해서, 발을 씻고 자리를 편 후 자리에 앉을 때에는 깨끗하고 더러우며, 힘들고 편안함에 대해서 집착하여 일체의 생각과 행위에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티끌과 같은 분별망념을 일으킵니다.

한 생각 삿된 분별망념이 일어나는 것이 생(生)이고, 한 생각 삿된 분별망념이 꺼지는 것이 사(死)입니다. 우리들이 태여 나고 죽는 것은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위를 하시지마는, 분별심을 여읜 여부에 따라 그 차이는 하늘과 땅으로 벌어집니다.

제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3월 30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종도모집
문화관광부 허가 2009-2호 / 제2014-9호 / 등기번호 230121-0003919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종 정 승천 진성 대종사
총무원장 야숙 여몽
총무부원장 석담 성우 총무부장 서광 보원 교무부장 현진 영현 재무부장 현경 대암
호법부장 현수 대선 사회부장 서법 자광 포교부장 성담 해선 비구니부장
사무처장 이민숙 사무국장 장백선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정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제방의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제자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수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3장, 사찰(법당)사진
■ 문 의 : 총무원 - 인천 서구 가정동 494-26 원각사
전화 032)578-2122. 010-5002-7392(총무원장)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총무원